


### 공동체 소식



**대림 제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대림시기 안내**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전에 계셨고(첫 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냅니다. 특별히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성탄 합동판공성사 안내**  
 - 일시 : 12월 11일(화) 저녁미사 전/후  
 - 미사 : 오후 7시 30분  
 - 세인트 루이스(Parish) 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 11일(화)에 판공성사 못 보신 분들은 매 미사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미사 봉헌때 함에 넣어 주십시오.

**평협회장 선거 안내**  
 - 선거일 : 12월 16일(대림제3주일)  
 - 대 상 : 본당 성인남녀 가톨릭신자  
 - 새평협은 대림 제3주일부터 시작되며 1월 평협회의 때 신규 평협인수인계 마무리합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교회법 제119조, 172조, 173조)

**제19차 성령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 피정**  
 - 일 시 : 12월 26일(수)~28일(금)  
 - 장 소 : 텍사스 휴스턴  
 - 한국어 진행 : 청년, 중장년  
 - 영어 진행 : 청소년및 청년  
 - 게시판 포스터 참조

**단체 회합 안내**  
 - 복사단 친교모임은 기상 문제 등으로 추후 공지합니다.  
 - 전례부 회합 : 12월 9일(일) 미사와 식사 후  
 - 1구역 모임: 12월8일(토) 7시, 김화년 요안나 자매님 댁

**전례봉사자 모집**  
 - 대 상 : 독서, 해설, 복사, 성가대원  
 - 전례부에 문의.

\* 제의와 전례복 세탁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찬 봉사자 모집**  
 - 대 상 : 형제, 자매님  
 - 총구역장에게 문의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상시)**  
 - 신청은 전례부에 문의(1년 \$60)  
 - 평일 미사 때 영성체송 합니다.  
 - 미사 참례전 기도문과 독서/복음말씀 읽어 보시다.

**평일미사 안내**  
 - 화,수,목요일 평일 미사 30분전 묵주기도 합니다.  
 - 묵주기도지향 : 냉담교우 회도와 본당공동체를 위해서.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481	217	159	97
차 주	92	511	154	91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토)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
차 주	김대연(요셉)	김병철(베네딕토)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띠노, 김대연 요셉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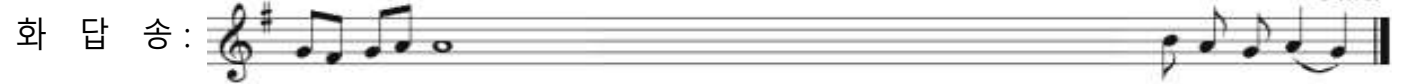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 주일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주님 나라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셨 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산과 언덕들을 평범하게 닦아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구세주의 탄생을 타오르는 믿음으로 경축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그림 묵상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하늘을 증언하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닦는 일입니다. 다음에 오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기를 광야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것 앞에 겸손할 수 있을 때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5,1-9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4-6.8-11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생명의 말씀 분별된 사랑의 행위는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성실한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아내의 오빠인 처남이 처한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비슷한 나이인 처남에게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되었고, 점점 심해져서 요사이는 그렇게도 서로 아끼던 여동생도, 매제인 자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 주일 병원에 가서 휠체어에 태워 산책하면서 이리저리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궁리 끝에 회장님은 마사사와 함께 손끝으로 50분 정도 처남의 등을 두드려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시원해." 이 반응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손끝에서 전해진 소통, 두 분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표징이었습니다.

이유 때문에 소원해졌던 이웃이 누가 있는가를 뒤돌아볼 때입니다. 있다면, 그는 나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통을 해야 하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통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의 거친 성격 때문이었다면, 그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데서 부터 소통은 시작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누구와 소통하기 힘들어했던 이유가 내 안에도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을 지내면서, 특히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분을 기도시간에 초대하여 그를 향한 사려 깊은 이해로 다가갑시다.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이 소통을 통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또다시 탄생하십니다.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왜 하필 광야였을까?  
도시에서 울려 퍼져도 되는 것을  
왜 하필 광야에서일까?

누구나 마음에 광야가 있다.  
그곳에서 울리는 소리이다.

마음이라는  
비어 있어 허전하고  
비어 있어 거룩한  
그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루카 3,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오늘 제2독서에서 필리피 공동체에 보내는 바오로 사도의 애정 어린 편지에서 다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식과 온갖 이해가 곁들여져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사려 깊은 이해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할지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분별된 사랑의 행위는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다가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교회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을 대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 마음속에 곧게 내라고 하십니다. 거만스러운 산과 언덕의 마음은 깎아내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굽은 마음은 곧게 하고, 거친 길과 같은 성격은 온순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하라 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요즘, 나에게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 말씀의 이삭

# LOVE MYSELF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좋아했던 가수는 '이동원' 씨입니다. 대부분의 앨범을 소장할 만큼 그 시절, 그의 노래는 저에게 '성사'였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비롯해 정지용 시인의 '향수' 등 아름다운 노랫말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부른 많은 노랫말은 시인들의 시어(詩語)였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BTS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BTS)의 '덕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미(Army)'로 활동하진 않지만 조용하게 열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룹명은 물론 가수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그들은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거듭되는 행보를 접할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멤버들 간의 공동체성, 노랫말 메시지로 '랩'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에게도 귀를 열게 했습니다.


데뷔한 지 5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그들이 뮤지션으로 성장한 성공신화를 보니까 그 중심에 팬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또래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케이팝 고유 가치를 지키며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리더 김남준의 UN 연설은 훌륭했습니다.

통했습니다. 인권 주일인 오늘, 그 내용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LOVE MYSELF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 말문을 엽니다. "LOVE YOURSELF 앨범을 발매하고,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한 후 우린 전 세계 팬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다"고요.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거기서 그는 '말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년이던 그는 어떻게 해서 꿈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걸 정말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결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조금씩 사랑해보려고 한다고요.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 열정과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녀회

## 교리상식



교리상식

### 성소가 뭐죠?

성소聖所는 라틴어로 vocatio인데, 어원적으로는 목소리vox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소명聖命이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의 부름심,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좁은 뜻으로 수도성소나 사제성소로 국한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넓게 보면,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성소를 받았든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 『교회상식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